

산업보건관리 업무의 다변화

송영숙(서울우유협동조합 보건관리자)

산업보건관리 업무의 다변화

1. 서론

1990년 7월14일 대통령령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개정 공포로 보건 담당자에서 보건관리자로 전격 선임되어 확대된 직무와 업무를 부여받은 이래 근래처럼 상황변화가 급변하던 시절도 드물었던 것 같다.

산업안전 선진화 3개년 계획에 의한 분위기 고조에 뒤이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의무고용제도에서 의무고용폐지론에까지 이르더니 작년말 우리는 I.M.F관리 경제시대를 맞이해서 각자가 속한 기업의 고용조정이라는 또 한 번의 혹독한 시련을 겪어 나가고 있 는 것이다.

300인 이상 업체에서의 보건관리자 의무고용제도가 없어지고 50인이상 업체이면 보건관리자를 선임, 혹은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을 하던지 사업주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겸직허용범위가 확대되는 등 보건관리자 공동채용제도가 신설되어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합병이나 고용조정에 의해 이미 정리해고되어 사업장을 떠난 보건관리자의 숫자도 적지 않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주변의 위기상황에서 우리는 나름대로의 사고의 전환과 위기극복을 위한 대응전략으로 이 어려움을 이기고 근로자의 건강과 안녕을 지키는 첨병으로서 역 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2. 본론

- 1) 현장에서 승부를 걸어라.
- 2) 이제는 조직의 한쪽이 아닌 한부분이 되어야 할 때이다.
- 3) 새로운 일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자.
- 4) 변하지 않는 주위의 것들에 대해 상심하지 말자 내가 변하면 되는 것이다.